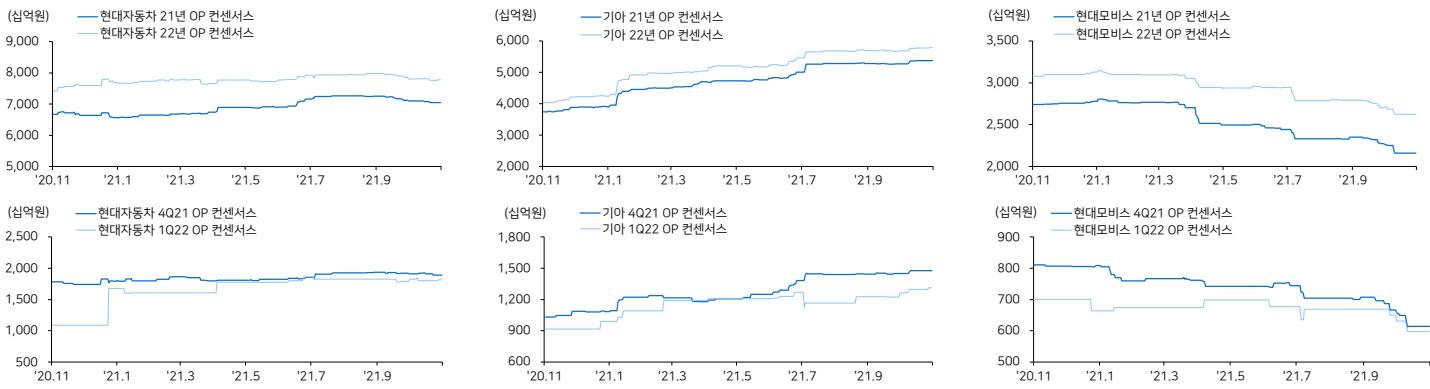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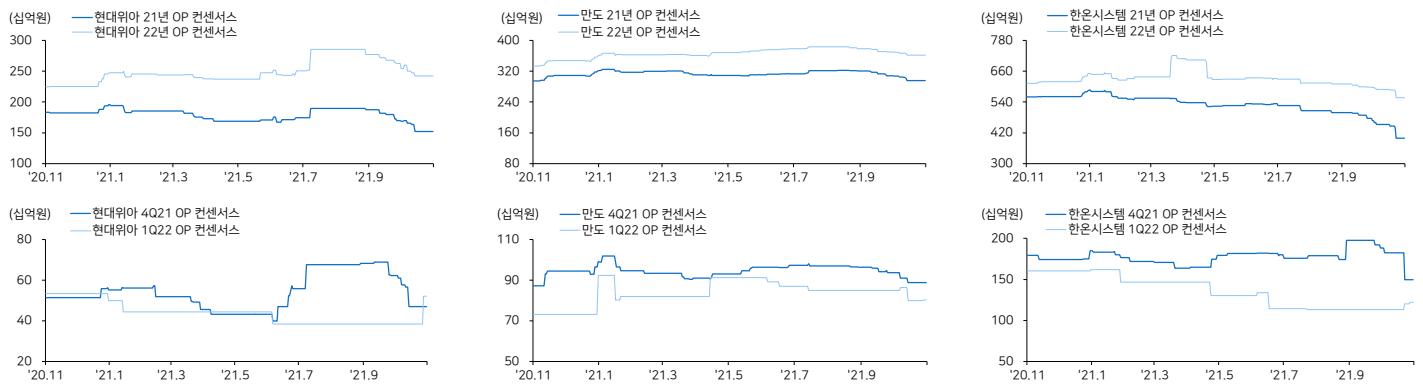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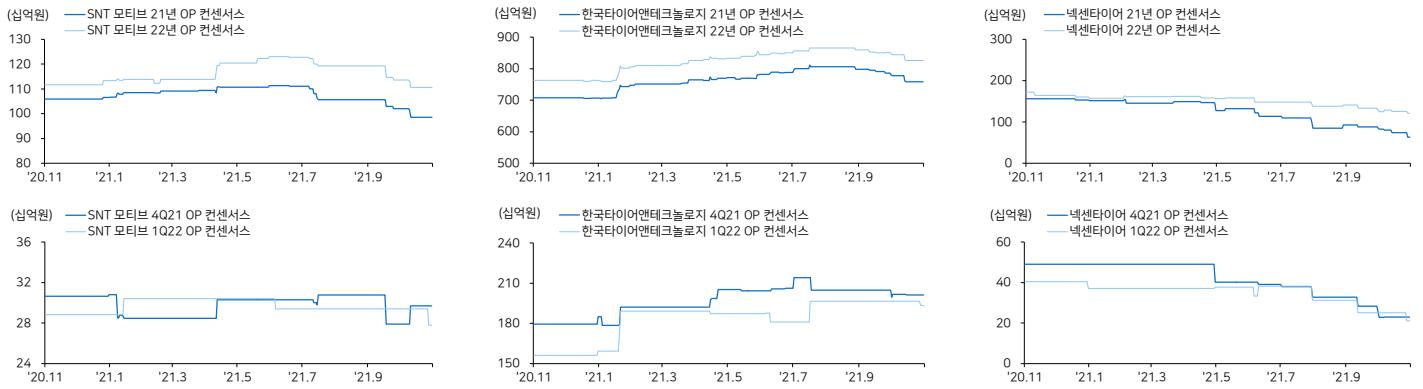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자동차·로보틱스 40대 임원 대거 약진 (서울경제)

40대 개발자 출신 임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축으로 발돋움 중. 신규 채용 인원 역시 생산직보다는 연구직 중심. “정보기술(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아야 한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말이 현실화되는 중.
<https://bit.ly/30M166R>

“시장 탈환” 현대차, 광저우서 GV70 전기차 첫 공개 (동아일보)

현대차는 GV70 전기차 모델을 중국 광저우 국제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1%대로 내려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하지만 중국 브랜드와 테슬라의 강세를 감안하면 현대차가 중국에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함.
<https://bit.ly/3qVWhfu>

‘Build Back Better Act’ passes House, EV tax credit faces US Senate next (electrek)

미국의 2차 인프라 패키지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음. 통과할 경우 EV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7,500USD에서 12,500USD(EV 인센티브 7,500 + 미 노조 4,500 + 미국산 부품 500)으로 향상될 예상.
<https://bit.ly/3qVJWn9>

포드-리비안 ‘전기차 동맹’ 깨졌다 (한국경제)

포드는 2019년 4월 리비안에 5억달러(약 5,950억원)를 투자하면서 맺었던 전기차 공동 개발 협약을 끝내기로 함.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포드와 GM을 정도로 급성장하여 포드가 위기감에 파트너십 결별로 이어졌다는 분석.
<https://bit.ly/32gCmc1>

현대차 ‘제네시스’ 역대 최고 비중 18.7%…영업익 7조 북극 ‘청신호’ (전자신문)

올해 현대차의 국내 판매 제네시스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18.7% 기록. 해외 판매도 두 배 이상 늘어 4만대를 돌파. 반도체 수급난에도 ASP가 높은 제네시스 판매 호조 바탕으로 7년 만에 영업이익 7조원 북극에 청신호가 켜짐.
<https://bit.ly/3x880sk>

수소에 진수! 현대차, 연료전지 조직 확 키운다…개발·사업 분리 (뉴스1)

수소사회에 진심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번에는 수소연료전지 조직 확대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 없이 탄소중립과 수소사회 없다는 판단이 작용. 연구소의 자원을 집중해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https://bit.ly/30HC5Pv>

전기차 만드는 완성차 업계, 2024년에나 테슬라 몰랑 앞질러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생산에 뛰어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어도 생산량 부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테슬라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됨. VW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EV 생산량은 ‘24년에도 100만대 미만에 머물 전망.
<https://bit.ly/3CDnFA>

반도체 이어 코발트 대란 ‘우려’…완성차업계 이중고 (THE GURU)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코발트 대란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https://bit.ly/3nAlKc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